

민자당 일당국회 해산투쟁 가열

서울·수원, 진군식 이후 계속적인 집회 가져

2학기 들어 민자당 '단국국회 해산, 학원자주화 투쟁 등 사안에 대한 각단위별 집회'가 열려 학생운동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2학기 진군식 및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를 위한 투쟁주간 선포식'을 지난 18일 노천극장에서 갖고 "내각제 개헌을 정점으로 한 장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중생존권을 억압하고 두개의 한국책동을 일삼는 노대우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통일광장에서 열린 2학기 진군식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협상 지지, 페르시아만 미군주둔비 지원 규탄 등을 결의했다. 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민자당 일당국회해산과 미·민자당분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김종원(신방·4)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예비역 문무대 입소거부투쟁에 대한 모범상 시상과 7개중대 1백20명으로 구성된 '구국선봉대' 발대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송규봉(국문·4) 총학생회수론(우주·4) 교육과정정의 위

최종등록 25일부터 이틀간

90학년도 2학기 최종등록일이 오늘 25일, 26일 양일간으로 결정됐다.

미등록자는 최종등록기간중에 전원 등록해야 하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재학생은 서울신학대학 전국 본·지점, 장학생은 서울신학대학 회경동 지점, 복학생은 본관 경리과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경우 서울신학대학 전국 본·지점 및 수원캠퍼스 경리과로 등록하면 된다. 한편 2차등록까지 서울캠퍼스는 83.6%, 수원캠퍼스는 83.3%의 등록률을 보였다.

남북학생 교류 투쟁 전개

25, 26일 연대서 전대협 학추위 주최로

반통일적 북방정책 분쇄와 남북청년학생 자주적 교류 성사를 위한 전대협 결의대회'가 오는 25, 26일 양일간 연대서에서 전대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 주최로 열린다.

전대협 대규모 패럴 교류투쟁사를 위한 전대협'과 문화공연등 전야제를 시작으로 26일 본행사인 △학생실무회담 경과보고와 회담대표단 소개 △북북학우 답신소개 △유엔대표단 환송 및 유엔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 등이 순서로 진행된다.

전대협 학추위는 "현정부의 반통일적 창구단일화음모분쇄와 대종적·자주적 교류를 추진하고, 전대협 1년개화과정 가능한 많은 과에서 남북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에서는 국문과, 사학과, 생물학과, 한의대가 남북친선을 했으며, 고구려 유물, 유적답사, 남북한 생태계 비교등 학술교류 추진을 위해 사전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권오중(연세대 총학생회장)전대협 학추위장은 "26일 판문점에서 '조선학생위원회'와 구

4주간 휴간합니다

10월 1일자로 발행예정인 934호는 추석연휴관계와 중간고사 관계로 오는 10월 29일자로 발간됨을 알려드립니다.

합은 지난20일 학생, 노동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20총궐기 투쟁을 성남에서 전개했다. 이날 시위도중 이재호(사회·3)군, 이용문 경원대총학생회장을 포함, 총38명이 성남경찰서에 연행됐다.

중간고사 15일부터

양캠퍼스 교무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간표는 8일부터 발표되며, 4학년 졸업논문 제출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교원자중증 서류발급 및 접수가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있다.

수원 자치비 납부저조

학생자치회비 납부율이 지난 2차등록 결과 서울 약98%, 수원 약7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2학기 학생회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수원캠퍼스는 학생자치회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자치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된다."고 밝혔다.

캠퍼스 풍경

어둔곳 묵묵히 일하는 자가 가장 필요한 순간 스스로 나선다.

救國의 이름으로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학우가 미다다

(지난 18일 노천극장에서 열린 구국선봉대 발대식에서)

<김미령 記者>

救國의 이름으로



가을 농활 27일부터 순창·남원 일대서 문화선전대·이동진료반 등 4백여명 참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는 추계농활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순창·남원 일대에서 가을농촌활동을 실시한다.

여름농활의 후속작업으로 순창군에서는 32개마을에 4백여명이 참가하며, 추수등 분활활동에 문화선전대와 의대, 한의대등 이동진료반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농활기간중 분활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농학연대를 위해 순창군 농민회와 현장치정세에 대한 토론회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총학생회 농활준비위원회는 1차장정회의를 갖고 사전교양, 활동계획, 농촌활동후 추수귀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

으며 지난 22일 마을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량과 농촌상황을 파악했다.

김기수(무역·4)농촌위원장은 "농민들과 함께 현장견학의 우루과이

V.O.U. 개국 33주년 방송잔치 25일 크라운관 콘서트홀서

서울 캠퍼스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은 오는 25일 오후5시 크라운관 콘서트홀에서 개국 33주년을 기념 방송잔치를 개최한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방송잔치는 1부 개회식, 실무국장 인사말, 이석우 신문방송국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며 2부수서사(OPEN STUDIO)는 다음과 같다.

△DJ구성(..., 그리고 갈래는 바람을 흔들고 있음) △V.O.U. 기자석(UR협상을 통한 농촌현실) △기습(여보세요! 잠깐만요) △비디오 구성(찰리체플린의 춘향전) △V.O.U.극장(마음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3부수서로는 가수 하덕규씨가 초대되어 특별공연을 갖는다.

사전합의 통한 열람실 공간확보 시급

▼유태인들에게 어려운 악조건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면면히 있게 해준 지혜의 보고 '탈무드'에는 탐비와 총명한 제자들의 대화가 어려웠 나온다. 그중 특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 제자가 묻기를 '탐비여! 만약 폭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달린 생명체가 있다면 어는 것이 그 생명체의 진짜머리입니까?' 탐비가 대답하기를 "몸부위에 어떠한 자국을 가했을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머리니라. 만약 둘다 반응했다면 그 생명체의 머리는 두개인것이다"

▼방화중에 마무리 하기로 계획했던 학내공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수원캠퍼스 외국어대는 폭주하는 도서의 수용을 위해 그나마 얼마되지 않은 열람실에도 개강과 함께 공사

를 시작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 작년까지 각각 학회실로 사용했던 방 2개를 공사기간중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복도와 길옆에 위치한 관계로 소음이 심해 학업에 열중할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수원캠퍼스의 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규모로 92년도 완공될 예정이다. 그기간까지 열람실 공간 확보문제로 외국어 대학생들과 사서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서과측은 다음달 12월 원형강의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총학생회와 학생회관으로 입주하면 그 공간을 열람실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어대생들은 단과대내 부족한 동아리들의 방으로 총학생회가 위치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며 부족한 열람실은 다른

공간으로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몸부위에 가해진 충격에 아픔을 느끼는것이 진짜머리라면 사서과나 학생회는 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빠른시일안에 협의를 봐야한다. 학생회관 입주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총학생회가 이전해가고 나서야 그 빈공간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학생회관의 공간배치가 입주계약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담구장등이 문제의 대상이 돼 대자본가 나날은 등 학내 전체가 들끓고 있는 경향을 다시한번 겪어아만 하는지 학생들은 의구심만 생길뿐이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계획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평화의 탑' 제막식 거행

국제평화연구소 소련의 유럽연구소와 교류협정

'평화의 탑' 제막식이 지난 18일 본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조영식총장 등 내외빈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평화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서 김명수 서울캠퍼스 재무처장은 "평화의 탑은 우리학교가 세계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것입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본교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본관 부총

장실에서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유럽연구소와 교류 및 협정에 관한 협의서에 조인했다.

국제평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의 참가자 내한한 유럽연구소 부소장 미로네크프와 국제평화연구소장인 신정현교수 사이에 조인된 협의서에 따르면 △학생 및 연구진의 교류 △합동연구프로젝트 개발 △연구자료교환등의 협력 사용을 진행하게 된다.

일본 아카다 경제법대학과



올바른 대학문화 "나로부터"

자기자신도 변변치 못하면서 남의 잘못은 잘못도 짚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똥 붙은 개'가 똥 붙은 개 나무란다'고 이야기 합니다.

"학교가 공부할 분위기 아니다"
"대학이 대학답지가 않다"
이런 말들을 우리입으로 쉽게 말하고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라라'식의 푸념은 진정으로 우리 대학을, 우리자신들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우리자신들의 얼굴에 침만 뱉는 꼴이됩니다.

우리모두 주위의 불건전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탓만하기보다는 나하나부터 대학인으로서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할때 올바른 대학문화는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